

# 프로야구·축구도 '덕분에' 열풍

'덕분에 챌린지', 12일 현재까지 국민 1만6867명 참여

최근 개막한 프로야구·축구 선수들도 세리머니 형태로 동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한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에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국민 1만6867명이 참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인스타그램 내 '#덕분에챌린지' 해시태그로 검색한 결과

최소 1만6867명 이상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밖에 '#의료진덕분에' 1만3620건, '#덕분에캠페인' 8990건이 검색됐다. 캠페인 시작일인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초기엔 44건에 불과했던 캠페인 정보량은 이후 2주 만에 22배 이상인 1002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날 기준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언급된 덕분에 챌린지 해시태그는 ▲

블로그 6만6545건 ▲동영상 1만2739건 ▲뉴스 2만5930건 ▲카페 1만4254건 등에 달한다. 각계각층에서 덕분에 챌린지 동참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개막한 프로야구(2020 KBO리그)와 프로축구(2020 K리그) 선수들도 '덕분에 세리머니'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덕분에 세리머니는 경기 중 득점한 선수가 세리머니로 의료진에게 존경의 의미를 전하는 수어 동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들의 캠페인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사회공헌활동(CSR) 신문광고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네이버는 '존경'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자사 로고와 합쳐 메인화면에 지속해서 노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진도 이에 화답했다. ▲대구 동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동의료원 ▲평택성모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도 캠페인에 참여해 서로를 격려하는 한편 국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thanks\_challenge)을 통해 2차 이벤트를 진행한다.

캠페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덕분에 배지' 1000개를 제공한다. 또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국민 중 캠페인 인증샷 공유 희망자에 한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개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덕분에 챌린지를 통한 전 국민적 참여는 의료 현장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덕분에 챌린지의 지속적인 동참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난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공식 개막전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성의 경기에서 전북현대 이동국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대상 온라인 특강

14일 '김창욱 교수의 힐링토크' 진행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단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을 연다.

대한체육회는 "14일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김창욱 교수의 힐링토크'라는 주제로 국가대표 소양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소통 전문가 김창욱 교수가 강사로 나서 도 교유티픽 연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응원하고 희망과 위로

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사전에 배포된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수강 신청 시 해당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가대표라면 누구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번 특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다시 도약하는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비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 LPGA 선수들, 온라인 골프 대결

미국프로골프(LPGA) 투어 선수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을 선보인다.

LPGA는 온라인 게임인 월드 골프 투어(WGT)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매치플레이 e스포츠 대회인 LPGA e투어 라이브를 런칭한다고 13일(한국시간) 발표했다.

게임에는 선수들이 직접 임하지만 스크린골프처럼 샷을 선보이는 것은 아니다. 선수들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활용해 플레이 한다.

8명의 LPGA투어와 시메트라투어 선수들이 맞대결을 펼친다. 일주일마다 두 차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3일 승자간 결승전이 열린다.

제시카 코다와 벨리 코카(이상 미국)의 자매간 첫 번째 매치는 2022년과 2027년 KPMG 위민스 FGA 챔피언십 개최장으로 예정된 콩그레스날 컨트리클럽 블루 코스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 한국형 디비전시스템의 '허리'

### K3·4리그 본격 출범

16일 무관중 경기로 개막

한국 축구 디비전시스템의 중심을 잡아 줄 K3·4리그가 마침내 시작을 알렸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2020 K3·4리그 출범식을 열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K3·4리그는 한국 축구의 디비전시스템 정착을 위한 발걸음이나 다름없다. 디비전시스템은 상위팀이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보편적인 운영 방식을 일컫는다.

축구 중추국인 영국은 24부리그까지 운영한다. 1~4부리그는 프로, 5부리그는 세미프로 및 아마추어, 6부리그 이하부터는 지역별 리그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12부리그까지 존재하는 독일은 1~3부리그가 프로, 4~5부리그는 세미프로 및 아마추어, 6부리그 이하부터는 아마추어 지역리그다.

K3리그가 출범한 것은 2007년이지만 K리그2 바로 아래 단계로 여겨지던 실업리그 내셔널리그의 존재로 축구계는 디비전시스템의 기틀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를 끝으로 내셔널리그를 폐지하고, 프로와 아마를 잇는 K3·4리그를 탄생시키면서 한국형 디비전시스템과 승강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K3리그는 내셔널리그에 참가했던 8개팀과 기존 K3리그 어드밴스 및 베이직 소속 8개팀이 경쟁을 벌인다. K4리그는 종전 K3리그팀 포함 총 13개팀으로 구성됐다. K3리그 15위와 16위는 K4리그로 자동 강등되고, K4리그 1,2위는 K3리그로 승격한다. K3리그 14위와 K4리그 3위와 4위의 승격플레이오프 승리팀의 단판 승강결정전도 마련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세미프로리그의 형태를 띠는 K3·4리그가 뿌리를 내리면 향후 프로인 K1·2리그부터 아마추어인 K5·6·7



2020 K3·4리그 출범식에 참석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까지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 K2리그와 K3리그, K4리그와 K5리그의 승강으로 연결이 되면 한국도 유럽 못지않은 선진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K3·4리그의 성공이 중요하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성인 축구를 아우르는 디비전시스템은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다. 반세기 동안 한국은 프로, 세미, 아마추어가 각각 운영됐다"면서 "이제는 모두가 디비전시스템에서 공존하게 된다. K3·4리그는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는 선망의 대상, 프로선수에게는 건전한 경쟁 심 갖게 하는 축구 발전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3·4리그는 16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K3리그는 네이버와 유튜브로 전경기 생중계된다. 무관중 경기 기간에는 K리그4도 전 경기 전파를 탄다. /뉴시스

## U-20·U-17 여자월드컵, 코로나19로 내년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FIFA는 13일(한국시간) 이사회를 통해 U-20 여자월드컵 등을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8월과 9월에 걸쳐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U-20 여자월드컵은 내년 1월20일부터 2월6일까지 열린다. /뉴시스

또 올해 11월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U-17 여자월드컵은 내년 2월17일부터 3월7일에 벌어진다.

해가 바뀌지만 나이 제한은 유효성을 발휘했다. 기존 자격을 가진 선수들을 그대로 뒀을 수 있게 했다. U-20 대회는 2000~2004년 출생자, U-17 대회는 2003~2005년 출생자가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U-20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뉴시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